

정례브리핑

2020.02.12(수) 10:30, 여상기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과 내일 부내에서 업무를 보실 예정입니다.

차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보시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행보 소식이 19일째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일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북한 최고지도자의 그런 잠행은 이례적인 것인지, 통일부는 이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평가는 제가 따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며칠 전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서한을 전달해 달라고 통일부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통일부에서 이를 북측에 전달했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전달했다면 북한 측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부는 기업협회의 대북 서한문 관련 남북 간 연락망을 통한 전달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인데요. 그러면 검토 중이라는 말씀은 전달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전달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검토가 이루어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